

# 지혜의 보고 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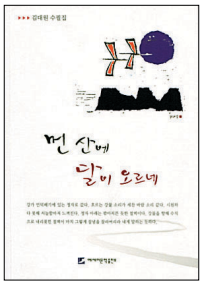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2.3~2015.12.9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담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죽은죽설	법륜지음	정토	6	조용현의 휴휴명당	조용현	불광출판사
2	법명해설사전	조계종교원(주)조계종출판사		7	가미-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집부	모과나무
3	무아유희문제의연구	홍진	불광출판사	8	정신과 의의 체험으로 보는 새마태와 행해사	전현수	불광출판사
4	한권으로 읽는 불교교리	지명성	(주)조계종출판사	9	이야기를 담은 사찰방상	이경애	아름다운인연
5	신묘정구대다라니기도법	유영선/김현호	효림	10	신심명(물목개달음의 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 찰진 필력의 큰 울림... 불교적 사유 밑바탕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먼 산에 달이 오르네**  
김대원 지음  
에세이문학출판부 펴냄  
1만 3천원

2004년 봄 달마문예대학서 맹난자 작가를 스승으로 만나 수학하며 지금까지 수필과 시에 정진하는 불자 수필가 김대원 작가(오른쪽 사진)가 최근 수필집과 시집을 잇달아 펴내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책 제목은 수필집 《먼 산에 달이 오르네》와 시집 《놀이》이다.

《먼 산에 달이 오르네》는 2011년 출간한 《백학산의 가을》 이후 4년만의 신작으로 두 번째 수필집이다. 책은 DMZ 인근 경기도 장단이 고향인 저자가 애써 꾸미지 않고 담담하게 풀어낸 44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마다 찰진 옹골감 넘치는 필력의 울림이 때론 잔잔히 때론 커다랗게 전

해진다. 대상의 내면을 깊은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공감의 언어로 한 뼘 한 뼘 손바느질하듯 이은 저자의 특신한 문장은 수필문학으로 형상화된 삶의 조각이 들어있는 300쪽 마지막 페이지까지 비움과 겸허의 자세로 읽게끔 만들어 준다.

저자는 “절을 찾을 때, 그냥 그 절을 보지 말고 그 당시 어떤 마음으로 절을 지었고 어떤 간절함에 부처님을 모셨는지,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살피고 싶다”며 “아간 산행 때 마당바위에 앉아 보면 휘영청 밝고 둥근달이 생각난다. 마치 비움, 하심, 용서를 바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물을 관조하며 글쓰기를 하라는 듯, 그 달은 내 안에 가득 차올라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그때 가진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 한다.”고 피력했다.

문학평론가 김우중 선생은 김대원 수필가의 수필 세계를 “일물 풍경 또는 서양 길을 걷는 나그네의 서정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평한 바가 있다. 그래서일까? 《먼 산에 달이 오르네》는 읽은 책들 중 유독 가슴 밑바닥에 부딪혀 오는 울림이 크다. 실향의 아픔이 녹진하지만 작가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산문적 언어의 바탕



4년만의 신작 두 번째 수필집  
문장호흡 나직하면서 담백해

을 이루는 문장 호흡이 나직나직하면서 담백하다고 김우중 평가는 밝힌다.

실제로 《한세》를 읽어보면 더욱 잔잔한 울림을 주는 것을 느낀다. “사골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황토집 하나 짓게 된다면, 지붕은 참새들이 깃들어 살 수 있게 초가지붕으로 하려나. 뒤울안에는 큰 갈나무를 서너그루 심어 되도록 홍시를 많이 남겨두어야지. 그리고 김치독 묻어둘 광도 만들어 두텁게 벗짚을 둘러치면 참새들의 침터도 될

수 있겠지. 바깥마춤 채마밭엔 무와 배추, 아욱이며 쑥갓 그리고 파와 상추까지 곱고 루 심을 것이다. 별레가 생기면 저들의 맛있는 먹이가 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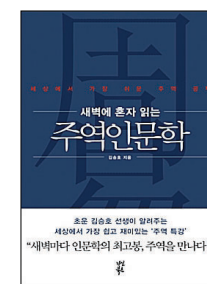
계절의 변화를 노래한 《먼 산에 달이 오르네》는 자신을 반추하게 만든다. “굴잡나 무며 딱갈나무, 상수리나무 등 많은 활엽수들이 곧 잎을 떨굴 준비를 하고 있다. (...) 나도 지금 그쯤 되는 여정(旅程)의 길을 가고 있다. 오늘 산행은 턱에 숨이 차도록 서두름도 없이 또 멀리까지 가는 무리한 산행도 아니었다. 예전 같았으면 땀을 뻘뻘 흘리며 산 정상상을 향해 앞만 보고 내쳐 달려가던 산행이었다. 젊은 시절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산행하는 모습도 바뀌어간다. 이제는 천천히 숲속을 둘러보며 그 안에 나를 던져 내가 풀과 나무도 되고, 자그만 박새와 산비둘기도 되어본다.”

시각이 선천적으로 뚜렷했듯 작가는 타고 났다는 것이 책값과도 느껴질 정도다. 전국전통사찰을 순례하며 심도 있는 해안으로 재해석하고 역발상하는 재주가 놀랍다. 그러면 풍경마다 애잔하면서 공간이 가는 것은 오랜 시간 글쓰기에 매진한 작가의 문장가적 기질 때문일 것 같다.

## 세상의 변화 움직이는 이치와 법칙 <주역> 공부방법 상세히 안내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인문학

김승호 지음 | 다산북스 펴냄 | 1만 5천원



주역은 오랫동안 최고의 경전으로 칭송되며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주역은 운세를 보는 책이라거나 읽기 어려운 한문으로 가득한 경전이라고 생각될 뿐이다. 하지만 공자는 “가족 끈이 세 번 끊어지도록” 주역을 읽었으며, 노자 역시 주요한 사상을 주역에서 빌려왔다. 또한 다산 정약용은 힘든 유배 생활 중에도 수년에 걸쳐 주역에 대한 저서를 남겼다. 서양의 아인슈타인 인부터 용까지 최고의 지성들 역시 하나같이 ‘주역’에 심취했다. 왜 그들은 수많은 고전들 중에서 주역에 심취한 것일까?

지난 50년 동안 주역 연구에 매진하며 ‘주역과학’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정립한 주역학자 김승호에 따르면 주역은 세상과 변화와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를 알려주는 지혜의 보고(寶庫)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역을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한자와 과상으로 가득한 주역은 쉽지 않다. 그래서 김승호 저자는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인문학>서 보통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역을 풀어낸다. 이 책은 가장 쉽고 명확하게 주역의 기본을 소개하고, 주역 속에 담긴 세상 만물의 변화 원리를 보여준다.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주역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주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주역은 신비의 학문이며 사서삼경(四書三經) 중 하나이다. 또한 주역이 점의 원리이며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 이론이라든가, 귀신을 부르는 학문이라든가, 성인의 학문이라든가, 신선의 공부라는 사람도 있다. 한국최고의 주역학자 김승호 저자에 따르면 주역은 우주의 순환 원리와 대자연의 질서, 인간 세계의 도를 규명하는 학문으로, 최근에는 새로운 시대의 대안적 세계관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주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주역은 한문으로, 그것도 중국인조차 알기 힘든 고대 한문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또한 과상 역시 암호처럼 보여 더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주역에 대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김승호 저자는 과상을 한문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씩 풀어 이야기한다. 양효와 음효가 3개씩 만나 팔괘를 이루고, 또 팔괘가 2개씩 짝을 지어 대성괘를 이루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팔괘는 글로 따지면 단어가 해당되는데, 이것을 상하로 배치하면 문장과 비슷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은 만물을 어떠한 상태라도 표현할 수 있다. 즉 주역은 ‘8개의 단어와 6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팔괘만 제대로 알면 주역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쉬운 주역을 우리는 왜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을까? 저자에 따르면 그 이유는 과상을 직접 연구하지 않고 한문의 번역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주역의 과상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과상만 알면 바로 해석할 수

## 저자의 주역공부 50년 내공 담겨 과상 바로알면 주역 해석 쉬워져

있는 것이 주역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즉, 과상을 통해 세상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주역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주역은 의학, 음악, 과학, 심리학, 군사학 등 어느 곳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주역이 무수히 많은 교훈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역에서 최고의 지혜를 배우는 한편, 그것에서 얻어지는 교훈을 인생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보람이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역을 모르고는 인생을 알 수 없다는 것뿐이다. 만물의 뜻을 모르고서 어찌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을 통해 주역을 만나보라. 주역공부를 통해 당신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과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며, 변화에 끌려다니기보다 변화를 주도하고, 만물의 뜻을 인생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놀이**  
김대원 지음  
비가람 펴냄  
1만 원

이 책에 등장하는 단시는 모두 142편이다. 왜 저자는 단시집이라고 못 박았을까? 수록된 시 대부분이 불교 2행 위주의 단시 형들이고, 3행과 4행을 헤어리거나 어찌다가 10행이 넘는 과격시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때문이다. 그가 이처럼 단시형에 폭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본래부터 단시를 선호한 나머지 그 밖의 시엔 거의 손을 안 대운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는 아주 특이한 개성적 존재라 평가받아야 마땅할 줄로 안다. 자기 나름의 뚜렷한 단시관이 서 있을게 분명하다.

시인에겐 반드시 투철한 시의식과 더불어 시 일반에 대한 비평 감각이 첨예화되

있기 마련이다. 김대원 시인은 2행시가 주특기다. 1행시나 2행시나 그 근원의 차이는 없다. 대개는 한 줄로 엮여도 되는 것을 2행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세계적으로 널리 영향을 떨치고 있는 일본의 단시, 하이쿠가 전형적인 1행시로서도 될 수 있듯이 말이다. 특히 박희진 시인은 작고전 서문에서 “김대원 시인의 2행시는 얼핏 보아 일본의 하이쿠를 연상케 한다. 그 영향을 알게 모르

## 단시 142편 소개... 2행시 특기 그의 자연시는 곧 불교적 시

게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 있다.”며 “두 시인의 시의 핵심이 지닌 파장의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김대원 시인의 것은 규모와 범위가 제한된 느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희진 시인은 “김대원 단시와 하이쿠의 또 하나 유사성은 하이쿠에는 거의 필수인 자연적 감각이 김대원의 단시에도

빠짐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었다”며 “모두 7장으로 구분된 그의 이본 시집은 목차만 보아도 그의 자연 편중을 이네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시에는 자연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의 자연시는 곧 인생시, 불교시라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본령은 역시 구도적 불교시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의 인생관의 중심 기저를 이루는 것은 곧 불교적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책 말미에 실린 저자의 약

저자 김대원 작가는? 경기도 장단(長湍)서 태어나 서울 덕수중·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학과에 입학, 2학년 수료 후 인대해 월남전에 참전, 맹호사령부서 군 복무를 마쳤다. 제이시어페어를 설립해 경영하고 있다. 문학 활동이력은 2004년 《수필과비평》 수필로 등단한 이후 2006년 《에세이문학》으로 수필가 추천을 완료했다. 또한 2007년에는 월간 《신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08년 제13회 탐미문학상(수필), 2008년 제20회 허난설헌문학상(시), 2013년 제3회 율마문학상(수필)을 받았다. 저서로는 수필집으로 《백학산의 가을》(2011년), 《먼 산에 달이 오르네》(2015년), 단시집 《놀이》(2015년) 등이 있다. 현재는 (사)한국수필문학진흥회 부회장, 에세이문학작가회 및 달마문학회 회장, 한국문인협회·국제 펜 한국본부·수필과비평·승현수필문학회·신문에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a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금문의
미얀마 6일	요금문의	(미얀마) 앙곤/바간/만달레이/헤호/찌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마하연의 특별함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력)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현시 출발

- 앙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앙곤/바간/만달레이/헤호/찌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앙곤/바간/만달레이/헤호/벤티야 7일
- 앙곤/바간/헤호 5일

###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गर-클루나-스라바스티-산키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클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볼라-시그리야-플로나루와-일루비라라-캔디

스리랑카 원전일주 8일  
클롬보-아누라다푸라-담볼라-시그리야-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클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볼라-시그리야-플로나루와-미탈레-캔디-클롬보-몽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गर-쉬리바스타-클루나-카트만두-니가르코트

###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향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향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항산/천제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 티베트/부탄

티베트 6일  
성도-라싸-양드록초-간체-시가체

티베트/부탄 8일  
중경-라싸-정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키투만두-피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니카-팀푸-피로-키투만두-니가르코트

동티베트 9일  
성도-문전-마일경-통달(오명불학원)-백목(아침스)-간딘-성도

###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